2021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 (상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상편◀

1. 문학 속으로

⑴ 동짓달 기나긴 밤을 (35문제)----------1쪽

⑵ 봄.봄 (47문제)----------12쪽

⑶ 이옥설 (39문제)----------42쪽

⑷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6문제)----------57쪽

2. 말과 글의 힘

⑴ 한국의 정체성 (34문제)----------84쪽

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40문제)-----101쪽

3. 삶에서 책을 찾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30문제)----------123쪽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⑴ 음운 변동 (66문제)----------137쪽

한글 맞춤법 (69문제)----------156쪽

⑵ 국어의 역사성 (61문제)----------180쪽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⑴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32문제)----------199쪽

▶빠른 전체 정답----------217쪽

▶해설----------22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상편◀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고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피에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론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상편◀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이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흠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딱 뿌러지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 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양양이 곧 현실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품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하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이를 마음에 품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예언서>
나는 이번 (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동짓달 기나긴 밤을" 정리 완벽

◆핵심 정리

갈래	, 고시조, 단시조
성격	감상적, 낭만적, 연정적
어조	그리움을 담은 여성적 어조
제재	밤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그리움
특징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 음성 상징어(의태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림.

• 구성

해당 부분	중심 내용
초장(1행)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중장(2행)	임과 함께 보내는 밤(봄밤,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바람
종장(3행)	임이 돌아와 함께할 시간을 간절히 기다림.

• 시상 전개

초장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냄.
▸ 외로움,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중장 베어 낸 동짓달 긴 밤의 시간을 춘풍 이불 아래에 넣어 둠.
▸ 임과 함께 보내는 밤을 더 연장하고 싶은 바람

종장 정든 임이 오신 날 밤에, 보관해 두었던 시간을 꺼내어 이어 붙임으로써 임과 오랫동안 함께 지냄.
▸ 임이 돌아와 함께할

• '밤'의 양면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 대비

동지(冬至)ㅅ돌 기나긴 밤	⇔	어른 님 오신 날 밤
• 임이 부재하는 현실 • 부정적 시간	⇔	• 임이 돌아와 함께 정을 나누는 때 • 긍정적 시간
• 차가움 • 외로움, 고독함 • 길게느껴짐.	⇔	• 따뜻함 • 애정, 사랑 • 짧게 느껴짐.

•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동지(冬至)ㅅ돌 기나긴 밤
- 자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 넣어 둠. '서리서리 너헛다가'
- 폄 '구뷔구뷔 펴리라'

⇩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함.

⇩

임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남.

• 표현상 특징

화자의 적극적 태도 임과의 이별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동짓달 긴 밤의 '한 허리를 버혀 내여' 다시 임을 만나는 날에 이어 붙이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줌.

유음을 활용한 운율감 형성 '동지ㅅ돌', '밤을', '허리를', '니불', '서리서리', '어론 님', '오신 날', '펴리라' 등에서 유음 ㄹ을 많이 활용함으로서 운율감이 느껴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림. '서리서리', '구뷔구뷔'와 같은 의태어(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노래함.

• 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시어

춘풍(春風) 니불 ⇨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 촉각적 심상

• 시조의 특징과 '동짓돌 기나긴 밤을'의 비교

시조의 특징	'동짓돌 기나긴 밤을'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총 6구로 구성됨.	[초장의 예] 동지(冬至)ㅅ돌 / 기나긴 밤을 (1구) 한 허리를 / 버혀 내여 (2구)
3·4 / 4·4 조의 음수율	[초장의 예] 동지(冬至)ㅅ돌(3) 기나긴 밤을(5(4)) 한 허리를(4(3)) 버혀(4) 내여
4 음보율	[초장의 예] 동지(冬至)ㅅ돌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여

• 대조적 이미지의 활용

동짓돌	• 이미지 • 임의 부재로 인해 밤이 더 길게 느껴지는 외로움의 시간임.
춘풍	• 따뜻함의 이미지 • 임과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마음이 반영된 시간임.
서리서리 너헛다가	임과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음.
구뷔구뷔 펴리라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과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양면돌 기나긴 밤을" 그리고 표현

1. 다음 표현이 주는 효과를 말해 보자.
• 서리서리 너헛다가
• 구뷔구뷔 펴리라.

→ '서리서리'와 '구뷔구뷔'의 반복 표현, '넣다'와 '펴다'의 의미상 대립, '기나긴 밤'을 마음대로 넣고 편다는 상상력 등이 어우러져 의미와 소리 양면에서 리듬감을 자아낸다.

2. 이 시조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상상해 보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에 어떤 태도로 대처하는가?
'어론 님'이 오시지 않거나, 오더라도 금방 돌아가는 상황	→	'어론 님'이 왔으면, 와서 오래도록 함께 정을 나눴으면 하고 바라는 감정, 곧 그리움과 기다림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	→	'어론 님'이 오시는 상황을 상상하여 주변의 모든 상황을 그에 맞춰 해석하고 재배열하며 기다리고 있음.

3. 이 시조가 어떠한 발상으로 주제를 형상화했는지 정리하고, 그러한 발상의 특징과 효과를 말해 보자.

(기나긴) 밤을 | 버혀 내어 → (이불 속에) 넣었다가 → 펴리라

• **발상의 특징:** 비물질적 대상인 시간을 마치 물질인 것처럼 베어 내고, 갈무리해 뒀다가, 다시 펼쳐 낸다고 표현하였다.
• **발상의 효과:**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냄으로써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4. **동짓돌 기나긴 밤을」과 「저녁에」의 형식과 표현을 비교해 보자.**

	동짓돌 기나긴 밤을	저녁에
연과 행	3장 6구 형식	3행, 또는 4행의 3연 구조
운율	4음보의 정형률	2음보와 3음보가 교차하는 자유율
표현 방법	비물질의 물질화를 통해 정서를 선명하게 표현	대비와 대구 등을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
어조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	영탄적이고 성찰적인 어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ㅅ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가락고등학교 (서울)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3·4(4·4)조의 음수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는 4음보로 된 정형시이나, (나)는 음보가 일정하지 않은 자유시이다.
③ (가)의 '귀뷔구뷔 펴리라'와 (나)의 '다시 만나랴'에서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④ (가)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된 평시조이며, (나)는 3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⑤ (가)와 (나)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②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④ 자연물 '춘풍'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원망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3. 화자의 정서가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晝夜)에 흐르거든 옛 물이 *있을손가
인걸(人傑)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 것은
*있을손가 : 있겠는가?

②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 녹수(綠水)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에어 가는고
*변할손가 : 변하겠는가?
*에어 : 흘러

③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ᄇᆞ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ᄒᆞ랴
말ᄉᆞᆷ도 *우움도 아녀고 몯내 됴하 ᄒᆞ노라
*우음 : 웃음

④ 한겨울에 베옷 입고 바위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볕도 쬔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 졌다는 소식에 눈물 나는구나

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난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를 설워하나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가)와 (나)에서 대조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찾아 연결한 것 중 바르지 <u>않은</u> 것은?

① 밤 - 허리
② 서리서리 - 구뷔구뷔
③ 동지(冬至)ㅅ달 - 춘풍(春風)
④ 기나긴 밤 - 님 오신 날 밤
⑤ 밝음 속에 - 어둠 속에

가락고등학교 (서울)

5. (가)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한 개의 단어로 쓰시오.

<보기>

(ⓐ)은/는 순우리말로 된 음성상징어로,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 할 뿐 아니라 동그랗게 마는 모양을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게 구체화하여 표현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을 현대어로 고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동방고등학교 (대전)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각 행을 네 박자의 호흡에 맞추어 읽는다.
② (가)는 정형적인 운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는 대비와 대구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단어가 함축적이고 화자의 정서를 압축하여 보여 준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8. (가)는 어떠한 발상으로 주제를 형상화했는지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나긴) ①밤을	②버혀 내어	→	(이불 속에) 넣었다가	→	펴리라

• 발상의 특징
③ 비물질적인 대상을 물질처럼 표현함

• 발상의 효과
④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냄
⑤ 임에 대한 원망과 이별의 애절함을 강조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ㅅ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동인고등학교 (부산)

9. (가)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형상화하였다.
② 동일한 형태소가 반복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④ 비슷한 길이의 유사한 표현을 나란히 배치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⑤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냄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10. (가)에 나타난 의미의 대립 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 존재 여부
② 계절의 춥고 따뜻함
③ 상황에 따른 상반되는 입장
④ 시적 자아와 임
⑤ 시간의 길고 짧음

동인고등학교 (부산)

11. 다음 중 (가) 시조에 드러난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마을 하늘은 물이런 듯 맑고 달빛도 푸르구나./ 지다 남은 잎에 서리가 쌓일 때/ 긴 주렴 드리우고 혼자서 잠을 자려니 /병풍의 원앙새가 부러웁네/

- 취선

② 묏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잠자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 홍랑

③ 배꽃 흩어 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 계랑

④ 어져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던가/ 이시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난/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를 설워하나이다.

- 박인로

동인고등학교 (부산)

12. (나)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일기를 썼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구를 만나든 성실과 정직을 최선으로 해야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오늘에야 깨달았다. Ⓑ지난 번 길가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는데 오늘 그 할머니를 우리 가게에서 만났다. Ⓒ할머니는 내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많이 사시는 듯했다. Ⓓ할머니와 나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다운 시간을 잠시 가졌다. Ⓔ사람은 또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일이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동인고등학교 (부산)

13.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정 갈래 :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로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는 문학이다.
② 서사 갈래 : 허구성을 바탕으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문학이다.
③ 교술 갈래 : 작가가 체험한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교훈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문학이다.
④ 극 갈래 : 이야기를 전달하되 직접 보여 주는 문학이다.
⑤ 서사 갈래 :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와 서술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ㅅ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 -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

마포고등학교 (서울)

1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3장 6구 형식의 사설시조이다.
② (가)와 (나) 모두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③ (나)에는 별과 '나'의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④ (가)와 (나)의 모든 밤은 모두 시적 화자에게 고독함을 느끼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⑤ (가)는 비물질의 물질화를 통해, (나)는 과장과 점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15. (가)의 표현 및 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냈다.
②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화자의 태도를 표현했다.
③ 대구를 통해 임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④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⑤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했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16. 밑줄 친 ⓐ~ⓔ가 지닌 각각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① ⓐ : 몹시 기쁘고 행복한 시간
② ⓑ : 봄꽃을 새겨 놓은 예쁜 이불
③ ⓒ : 어리석은 임
④ ⓓ : 짧고 아쉬운 시간
⑤ ⓔ : 춘풍(春風)같은 이불을 폄

마포고등학교 (서울)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나'의 소중한 존재와의 만남
② ㉡ : 이별 또는 단절의 시간이 다가옴
③ ㉢ : '나'의 별의 관계가 단절됨
④ ㉣ : '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참다운 관계
⑤ ㉤ : 정다운 별과 다시 만날 수 없음에 대한 절망

문정고등학교 (서울)

18. (가)가 주제를 형상화한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u>2개</u>)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의미와 소리 면에서 리듬감을 자아냈다.
② 어론 님이 오시지 않거나, 오더라도 금방 돌아가는 상황을 자책했다.
③ 긍정적 시간과 부정적 시간을 대비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④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표현하여 간절함을 강조했다.
⑤ 임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바람, 기다림 등을 나열하여 사랑의 깊이를 표현했다.

문정고등학교 (서울)

19.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가)	(나)
① 연과 행	3장 6구	3연 11행
② 운율	정형률	내재율
③ 표현방법	비물질의 물질화	대비, 대구
④ 어조	의지적, 주체적	영탄적, 성찰적
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인간과 자연이 대립된 사회에 대한 비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ㅅ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성동고등학교 (서울)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동지(冬至)ㅅ둘 : 음력으로 12월을 일컫는 용어이다.
② 춘풍(春風) 니불 : 촉각적 심상이 청각적 심상으로 전이된 부분이다.
③ 서리서리 : 의성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부분이다.
④ 오신 날 : '오셨던 날'이라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⑤ 펴리라 : '너헛다가'와 의미상 대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성동고등학교 (서울)

2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말 자음 중 비음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부드러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동지(冬至)ㅅ둘'은 '임이 부재하는 밤'의 비유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④ 이 작품에 사용된 음성상징어들은 대상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⑤ 화자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보이지 않고 능동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성동고등학교 (서울)

22.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어조	여성적 어조	성찰적 어조
② 운율	4음보 정형률	2음보와 3음보가 교차하는 자유율
③ 연과 행	3장 6구 형식	3연, 3행 또는 4행
④ 표현	대조적 의미의 시구 사용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
⑤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와 회의

성동고등학교 (서울)

23. <보기>의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문학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언어를 수단으로 재미와 감동을 준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_____의 방법, 곧 주제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_____ 갈래는 세계와 삶에 관한 성찰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_____ 갈래는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의 양상을 직접 보여준다. ㉣_____ 갈래는 대체로 매력 있는 인물, 긴장감이 넘치는 사건 전개, 개성 있는 문체와 표현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_____ 갈래는 시어를 섬세하게 사용하고 비유, 상징, 이미지, 운율 등을 통해 정서를 집약하여 표현한다.

	㉠	㉡	㉢	㉣	㉤
①	형상화	교술	서사	극	서정
②	서술	교술	서사	극	서정
③	형상화	교술	극	서사	서정
④	서술	서사	교술	극	서정
⑤	형상화	서정	서사	극	교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ㅅ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 「동짓둘 기나긴 밤을」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양명고등학교 (경기)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② (가)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③ (가)는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를 통해 기다림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직유법을 통해 화자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⑤ (나)는 자연물과 인간의 대응을 통해 관조적인 성찰을 보이고 있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2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수로만 이루어진 단시조이다.
②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 틀을 잘 지키고 있다.
③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④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⑤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시조이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26.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행 또는 4행의 3연 구조로 된 자유시이다.
② 시어의 대조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 하고 있다.
③ 시 속에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영탄적이고 사색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⑤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2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임의 부재로 인해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다.
② ㉠은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다.
③ ㉡은 구체적인 개념을 추상적으로 상상하여 표현했다.
④ ㉢은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을 의미한다.
⑤ ㉤은 임이 오시는 긍정적인 시간이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28. (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넣다'와 '펴다'의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행동을 개념화하고 있다.
③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한 부분이다.
④ 반복적인 표현으로 리듬감을 자아낸다.
⑤ '기나긴 밤'을 마음대로 넣고 편다는 상상력이 어우러져 있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29. (나)의 ㅅ과 ㅇ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ㅅ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다.
② ㅅ은 운명적인 만남의 대상이다.
③ ㅅ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소중한 존재이다.
④ ㅇ은 계절감을 주며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어이다.
⑤ ㅇ은 깊이 있게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30. <보기>는 (나)의 시상전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연 '별'과 나의 (㉠)
2연 '별'과 나의 (㉡)
3연 '별'과 나의 (㉢)

① ㉠ 이별　② ㉠ 만남
③ ㉡ 만남에 대한 집착　④ ㉡ 재회
⑤ ㉢ 재회에 대한 체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ㅅ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31. (가)에 나타난 정서와 가장 유사한 작품 2개를 고르면?

① 눈 맞아 휘여진 대를 뉘라셔 굽다턴고.
구블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쏘냐.
아마도 세한(歲寒) 고절(孤節)은 너 뿐인가 하노라.
② 묏버들 가려 것거 보내노라 남에게
자시는 창(窓) 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예 새 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③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몯내 좋아 하노라.
④ 마음이 어린 후(後)ㅣ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님 오겠냐마는,
지는 닙 부는 바람에 행여 긘가 하노라.
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안이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없슬새 글노 설워하나이다.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시어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정형적인 운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33.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연과 행**	3장 6구 형식	3행, 또는 4행의 3연 구조
② **표현방법**	불가능한 행위를 가능한 것으로 표현	대구와 대조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함.
③ **어조**	주체적·의지적	영탄적·성찰적
④ **운율**	3음보의 정형률	2음보와 3음보가 교차하는 자유율
⑤ **특징**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함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아와 세계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이를 해소하는 한 방식은 세계를 자신의 소망에 따라 상상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형이란, 객관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아의 의지에 의해 세계를 초논리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뜻한다.

① 밤의 '한 허리'를 베어 낸다는 것은 시간적 배경에 대한 상상적 변형이 되겠군.

② '님'을 '어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질서를 무시한 자아의 의지를 보여 주는군.

③ '밤'을 '니블 아래' 넣는다는 것은 세계를 초논리적으로 가공하는 것이겠군.

④ '님 오신 날 밤'에 '구뷔구뷔' 펴겠다는 것은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⑤ '님'이 부재한 동짓달 '밤'이 길다는 건 자아와 세계와 갈등하는 이유가 되겠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

35. (나)'저녁에'를 <보기>와 같이 시조를 바꾸었을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두었는지 빈 칸을 채워 설명하시오.

<보기>

별 하나 나를 보고 나 또한 그 별 보는데
밝음과 어둠 속에 별도 나도 간 데 없네.
이렇게 정다운 우리 어디 가서 또 만나리.

<조건>

- 각 2어절, 3어절로 쓸 것

(　　)을(를) 살리면서 (　　)으로(로) 바꾸고자 함.

- 끝 -

오답 노트 (작성일:)

틀린 문제 번호	틀린 이유, 새롭게 알게 된 것, 반성 등을 기록

7.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기다림을 능동적으로 표현하여 만남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9.④

▶㉣에서 화자의 확신은 약화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10.①

▶㉮는 기다림의 대상이기에 화자에게 친근감을 유발하고 ㉯는 피해야할 대상이기에 화자에게 비애감을 유발한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해제: 이 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타는 목마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유신 체제의 폭압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열망을 온몸으로 절규함으로써 김지하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우뚝 서게 한 이 시에는, 당시의 현실을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신새벽 뒷골목에 남몰래 쓰는 시적 상황 속에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연에서는 '신새벽'이라는 시간과 '뒷골목'이라는 공간이 갖는 복합적 의미 구조를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시인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연은 '발자국 소리'에서부터 '탄식 소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소리의 중첩을 통해 이 시대의 공포와 고통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다. 3연에서 화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분노와 비통함으로 흐느끼면서 뒷골목의 나무 판자에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쓴다. 이 구절은 그 어떤 산문적 서술보다 뚜렷하게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대의 아픔을 넘어 '저 푸르른 자유'로 달려가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11.⑤

▶기다림이라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체험을 소재로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청유형 문장은 없음. ③ 의지적 어조임. ④ 주관적으로 묘사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12.③

▶③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처럼 역설임.

13.⑤

▶ⓔ : 화자의 확신이 약화되는 것이지, 소극적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의 심상과 감각 (★★★)

ㄱ.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ㄴ.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ㄷ.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ㄹ.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ㅁ.촉각-피부의 느낌 (서느런 옷자락)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등의 사용

14.①

▶시선의 이동 없음.

⑤ 발자국 소리의 의성어인 '쿵쿵'은 가슴이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로 연결되어 화자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5.②

▶㉡ : '너'에 대한 확신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⑤

① ⓐ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긍정적인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② ⓑ는 의문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는 기다림에 대한 화자의 실망만 나타난다. ④ ⓓ는 건네는 말이지, 문답법이 아님.

▶응, 헛갈리지 마!◀

사물 vs 자연물

ㄱ.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ㄴ.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18.②

① 둘 다 해당 없음. ③ (가)에만 해당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④ (가)에만 해당 ⑤ 둘 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의 전개 방식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대립적 전개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19.③

▶㉠과 ⓒ는 역설임.

20.①

▶㉮ : '너'가 올 것이라는 희망임.

21.⑤

ㄷ: '쿵쿵'만이 같은 현상에 대한 표현으로 이중적인 표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ㄹ: 내용전개의 흐름은 만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화자의 감정 상태: 격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다.

22.②

▶(가)와 ②에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정서가 있음.

◆주제 저장소◆

①②③ <어서 너는 오너라>: 조국 광복의 환희와 민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

④ <또 다른 고향>: 현실 극복과 이상향에 대한 동경

⑤ <바다와 나비>: 낭만적 꿈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 인식

▶옜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4.①②

▶(가)의 Ⓑ와 (나)의 Ⓑ에 사용된 역설법이 ①, ②에도 사용됨.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고와서 서러워라'→역설법)

26.④

▶시간의 흐름은 없고 심리 변화는 직접 제시됨.

▶응, 헛갈리지 마!◀

유사한 어구 vs 동일한 어구

ㄱ. 유사한 어구: 서로 닮은꼴.

ㄴ. 동일한 어구: 완전히 똑같음.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

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27.④
▶이 시의 '화자'는 포기가 아닌 대상을 향해 다가서기 위한 적극적인 기다림을 하려함.

<농무>
*주제: 농민들의 한(恨)과 고뇌 어린 삶
*해제: 이 시는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사실적이고, 극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시에는 '농무(農舞)'라는 놀이가 등장하나 이것은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다. 농무는 농민들의 한풀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나고, 학교 앞 소줏집에서 술을 마시는 농민들에게 밀려오는 것은 허탈감뿐이다. 삶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와 '이까짓/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는 구절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허탈감과 원통함, 울분을 안고 농무를 추면서 쇠전을 거쳐 도수장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지닌 한(恨)은 '신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신명'은 분노를 삭이면서 형성된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겉으로 흥겨운 축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시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농민들의 처절한 몸짓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울분과 한의 정서에 공감을 하게 된다.

▶옜다, 1등급 조언◀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수험생들에겐 당연히 부담이 된다. 무엇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28.③
▶위 시와 ③에는 간절한 기다림(그리움)의 정서가 있음.

◆주제 저장소◆
①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에 대한 비판.
② <여승>: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③ <청산도>: 밝고 건강한 세계에 대한 소망
④ <참회록>: 자기 성찰을 통한 순결성 추구
⑤ <사령>: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

4-(1) 음운 변동

1.①
▶잃고[일코], 많군[만쿤]: 축약
② 않아[아나]: 탈락, 많지[만치]: 축약 ③ 넣은[너은]: 탈락, 놓다[노타]: 축약 ④ 탈락 ⑤ 쌓는[싼는]: 교체, 않고[안코]: 축약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격음화> (★★)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 되게 함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ㅈ+ㅎ=ㅊ
-국화[구콰], 맏형[마텽], 잡히다[자피다], 젖히다[저치다]

2.①
▶뜨+어=떠 ('ㅡ'탈락)
② 뜨+이+게=띄게 ③ 되+어=돼 ④ 가지+어+도=가져도
⑤ 두+었+는지

3.⑤
▶실내[실래]: 순행적 유음화, 탄력[탈력]: 역행적 유음화
① 물난리[물날리]: 역행적 유음화, 종로[종노]: 비음화
②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괄령]: 역행적 유음화
③ 전라도[절라도], 논란[놀란]: 역행적 유음화
④ 줄넘기[줄럼끼]: 역행적 유음화, 강릉[강능]: 비음화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비음화 (★★★)
:비음 아닌 자음(ㄱ,ㄷ,ㅂ)이 비음(ㄴ,ㅁ)을 만나, 비음(ㅇ,ㄴ,ㅁ)으로 바뀌는 현상.
(국물→궁물, 꽃말→꼳말→꼰말, 밥물→밤물)

2.유음화 (★★)
:'ㄴ'이 'ㄹ'을 만나 'ㄹ'로 바뀜. (칼날:[칼랄], 신라[실라])

4.③
① 깍아[까까]: 연음현상
② 감기다[감기다]: 피동 접사 '기'는 된소리되기 예외.
④ 겹받침 'ㄺ'은 제26항에 해당 안 됨.
⑤ '내 것'과 제27항은 상관없음.

5.③
▶㉢은 세 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남

㉠ 협력→[협녁](비음화) →[혐녁](비음화)
㉡ 흙만→[흑만](자음군단순화)→[흥만](비음화)
㉢ 옷맵시→[옫맵시](음절의 끝소리)→[온맵시](비음화)→[온맵씨](된소리되기)

① ㉠은 'ㄴ'에 인접한 'ㅂ'은 동화되어 'ㅁ'으로 바뀜.
④ 모두 비음화 현상이 나타남.

8.⑤

▶공권력[공꿘녁]: 비음화, 된소리되기

㉠ 법학과→[버팍과]→[버팍꽈]: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되기 ㉡ 뜻하지→[뜯하지]→[뜨타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 먹었는데→[머걷는데]→[머건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나눴다→[나눧다]→[나눧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① 입학식→[이팍식]→[이팍씩]: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되기

② 번듯한→[번듣한]→[번드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③ 부엌만→[부억만]→[부엉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④ 꽃다발→[꼳다발]→[꼳따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받침 발음은 ㄱ,ㄷ,ㅂ,ㄴ,ㄹ,ㅁ,ㅇ 중 하나로 교체 발음 됨.

(ㄲ,ㅋ→ㄱ / ㅉ,ㅌ→ㄷ / ㅃ, ㅍ→ㅂ /ㅅ, ㅆ, ㅈ, ㅊ, ㅎ→ㄷ)

2. 된소리되기 (★★★)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됨. 특히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ㅙ, ㅞ,ㅄ)' 뒤에 연결되는'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

-국밥[국빱], 깎다[깍따], 입고[입꼬]...

3. 거센소리되기 (★★)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 되게 함.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ㅈ+ㅎ=ㅊ

-국화 [구콰], 맏형[마텽]

9.①

▶'배춧잎[배춛잎→배춛닙→배춘닙]'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과 ㉢(ㄴ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② '줄넘기[줄럼기→줄럼끼]'에서는 ㉠(유음화, 된소리되기)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는 그대로임.

③ '국화꽃[구콰꽃→구콰꼳]'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듦.

④ '닭다리[닥다리→닥따리]'에서는 ㉡(겹자음 탈락)과 ㉠(된소리되기)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듦.

⑤ '편입학[펴닙학→펴니팍]'에서는 ㉡(ㄴ탈락)과 ㉢(ㄴ첨가)과 ㉣(ㅎ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듦.

▶응, 헛갈리지 마!◀

ㄱ.기본 자음과 모음은 1음운.

ㄴ.된소리, 거센소리, 이중모음도 1음운.

ㄷ.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님.

ㄹ.받침의 'ㅇ'은 음운에 해당.

10.④

▶달나라[달라라]: 순행 동화. 나머지는 역행 동화임.

① 광한루[광할루] ② 흙만[흥만] ③ 대관령[대괄령] ⑤ 긁는[긍는]

11.②

▶국밥[국빱], 젊다[점따], 발전(發展)[발쩐], 넓다[널따]

① 절기(節氣)는 [절기]로 발음되어 ㉢에 해당하지 않음.

③ 전등(前燈)은 [전등]으로 발음되어 ㉢에 해당하지 않음.

④ 설계(設計)는 [설계]로 발음되어 ㉢에 해당하지 않음.
끼얹다[끼언다→끼언따]는 ㉠에 해당.

⑤ 결과(結果)는 [결과]로 발음되어 ㉢에 해당하지 않음. 옳다는 [올타]로 발음되어 ㉣에 해당하지 않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된소리되기 (★★★)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됨. 특히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ㅙ, ㅞ,ㅄ)' 뒤에 연결되는'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

-국밥[국빱], 깎다[깍따], 입고[입꼬]...

13.②

▶꽃밭이[꼳빠치]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구개음화)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① 닫혀[다쳐]에서는 ㉠(구개음화)의 음운현상도 일어난다.

③ 숱하다[숟하다→수타다]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음운현상도 일어난다.

④ 값이[갑시→갑씨]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의 음운변동만 일어난다.

⑤ 맨입[맨닙]에서는 ㉢(ㄴ첨가)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받침 발음은 ㄱ,ㄷ,ㅂ,ㄴ,ㄹ,ㅁ,ㅇ 중 하나로 교체 발음 됨.

(ㄲ,ㅋ→ㄱ / ㅉ,ㅌ→ㄷ / ㅃ, ㅍ→ㅂ /ㅅ, ㅆ, ㅈ, ㅊ, ㅎ→ㄷ)

2. 구개음화 (★)

ㄷ, ㅌ+ㅣ, ㅣ계열의 모음 → ㅈ, ㅊ (모딘-모진, 굳이-구지)

3. ㄴ'음 첨가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솜:니불], 한-여름[한녀름], 국민-윤리[궁민뉼리]

14.③

▶㉡은 조음 방법에 동화된 것임.

①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② ㉡은 축약이 이루어지므로 음운 개수에 변화가 있음. ㉠과 ㉢은 교체만 이루어지므로 음운 개수에 변화가 없음.

④ ㉢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이루어진 후 비음화가 이루어짐. (꽃눈→꼳눈→꼰눈, 뱉는→밷는→밴는)

⑤ 옷 한 벌→[옫 한 벌]→[오 탄 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과 축약이 모두 일어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받침 발음은 ㄱ,ㄷ,ㅂ,ㄴ,ㄹ,ㅁ,ㅇ 중 하나로 교체 발음 됨.

(ㄲ,ㅋ→ㄱ / ㅉ,ㅌ→ㄷ / ㅃ, ㅍ→ㅂ /ㅅ, ㅆ, ㅈ, ㅊ, ㅎ→ㄷ)

2.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격음화> (★★)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 되게 함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ㅈ+ㅎ=ㅊ

-국화[구콰], 맏형[마텽], 잡히다[자피다], 젖히다[저치다]

16.④

▶'권력'은 ㉣의 규칙에 따라 [궐녁]으로 발음함.

17.②

① 불법(不法)은 ㉡에 해당하지 않음.

③ 밟다[밥따]는 ㉢에 해당하고 김밥[김빱]은 ㉢에 해당하지 않음.

④ 설다[설따]는 ㉠에 해당하지 않음.

⑤ 굴곡(屈曲)[굴곡]은 ㉡에 해당하지 않음.

18.②

▶곁에서[겨테서]는 연음 법칙이 일어날 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

① 좇지[조치], 그렇지[그러치] ③ 떠=뜨+어 ('ㅡ'탈락)

④ 많더라[만터라] ⑤ 로+고=노고 (두음법칙)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연음 법칙 (★)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20.③

▶꽃눈[꼳눈→꼰눈], 넣는[넏는→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① 끝단[끝단→끋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② 논리[놀리]: 유음화

④ 부엌도[부억도→부억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⑤ 앞바다[압바다→압빠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21.③

▶울림소리 'ㅁ'이 안울림소리 'ㄱ'을 만나 'ㄱ'을 울림소리로 만드는 것임.

22.②

▶인류[일류]: ㄴ+ㄹ→ㄹ+ㄹ

23.④

▶값[갑]: 자음군단순화. 나머지는 교체임.

닦다[닥따], 입술[입쑬], 굳이[구지], 국물[궁물]

▶응, 헛갈리지 마!◀

된소리의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 ○, 탈락 ×

닦지 → [닥지]

'ㄲ'이 'ㄱ'으로 교체 ○, 'ㄲ' 중 'ㄱ' 하나가 탈락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자음군 단순화=겹받침 발음> (★★)

1. ㅄ, ㄳ, ㄺ, ㄻ, ㄼ, ㄾ, ㅀ은 항상 뒤의 자음이 탈락한다.

값[갑], 없다[업따], 몫[목], 외곬[외골], 앉다[안따], 핥다[할따], 않는[안는], 잃는[일른]

2. ㄵ은 '밟다'만 제외하고 항상 뒤의 자음이 탈락한다.

여덟[여덜], 넓다[널따] / 예외 : 밟다[밥따]

3. ㄻ, ㄿ은 항상 앞의 자음이 탈락한다.

삶[삼], 굶다[굼따], 읊다[읍따]

4. ㄺ은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만 제외하고 항상 앞의 자음이 탈락한다.

닭[닥], 읽다[익따] / 예외: 읽고[일꼬], 읽게[일께]

24.⑤

▶'몰상식'[몰쌍식]은 26항의 예임.

26.③

① '쇠붙이→[쇠부치]'는 구개음화로 음운의 수는 그대로임.

② '좋아→[조아]'는 'ㅎ'이 탈락한 거임.

④ '톱밥→[톱빱]'은 'ㅂ'이 'ㅃ'로 교체된 거임.

⑤ '하얗게→[하야케]'는 'ㅎ'이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구개음화 (★)

ㄷ, ㅌ+ㅣ, ㅣ계열의 모음 → ㅈ, ㅊ (모딘-모진, 굳이-구지)

27.④

① '역할[여칼]'은 거센소리되기임. ② '발전[발쩐]'은 ㄷ의 예임. ③ '꽃다발[꼳따발]'은 ㄱ의 예임. ⑤ '간 사람[간 싸람]'은 ㄹ의 예가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된소리되기 (★★★)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됨. 특히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ㅄ)' 뒤에 연결되는'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

-국밥[국빱], 깎다[깍따], 입고[입꼬]...

2.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격음화> (★★)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 되게 함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ㅈ+ㅎ=ㅊ

-국화[구콰], 맏형[마텽], 잡히다[자피다], 젖히다[저치다]

28.⑤

① ㉡도 발음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② ㉠은 음운 축약에 해당함. ③ '피어[피여]'는 이중모음화로 ㉡의 예가 아님. ④ ㉠도 음운 변동 결과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됨.

29.⑤